

# 광산구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충 속도

### 내년까지 주택·상가·공장 등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설비 지원

광주 광산구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자립 기반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정부 '3020정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확대)'에 맞춰 2020년부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연계해 주택과 상가, 공장 등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도산동 86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우산동과 월곡1동과 월곡2동 264곳에 태양광 987kw, 태양열 132㎡ 규모의 설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5억원을 투입해 신장동, 신가동, 하남동, 비아동, 첨단1동과 첨단2동 23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산구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송정1동과 송정2동, 이룡동, 수완동, 평동 294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설비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광산구 900여 개 주택, 건물에 에너지 자립 설비가 갖춰지게 된다.

광산구는 공공시설 및 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산구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8개 공공시설에 160k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 중이다.



광산구 수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에너지전환·자립 기반 조성 등을 다짐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2017년부터 광산구민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첨단도서관에 2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달 내로 준공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광산구의 노력으로 산업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광산구의 발전사업(용량 3MW 이하) 허가 누적 건수는 1218건으로, 광주 전체 허가 건수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구민의 에너지 전환 운동도 돋보인다. '첨단 전환마을 에너지카페'에 이어 올해 '수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가 문을 열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광주 최초의 에너지전환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산구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10명의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정 TF팀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타 지역 에너지센터 사례를 검토하면서 광산형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에너지는 기후위기, 시민 삶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광산구는 그 어떤 곳보다 적극적으로, 앞서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 속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아파트 노동자들에 감사 편지 '훈훈'

### 송정명지아파트 주민들, 오순도순 마을살이 사업 활동

'밝은 미소와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광산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경비, 청소, 택배 등 노동자에게 감사 편지를 전하는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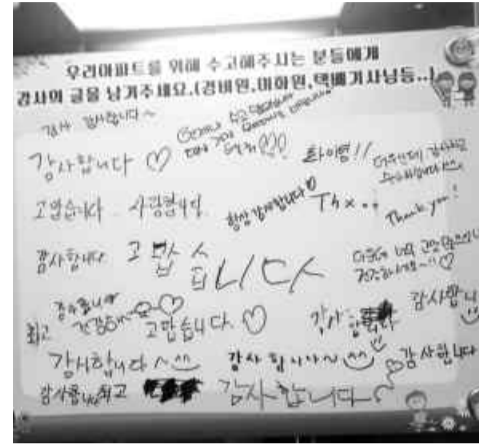
2022년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 '오순도순 마을살이와 행복동행 주민공모' 사업에 참여한 '송정명지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강동아리를 만들어 건강체조, 걷기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이웃을 살피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지 곳곳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경비원, 청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노동자들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은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기영철 송정명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그동안에도 아파트 노동자들의 휴식 권



송정명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노동자에게 전하는 감사편지'.

리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주민들 역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함께 해주고 있다"며 "나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목표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환경정화 '어룡 초록 발걸음' 마무리

### 견고 싶은 마을 조성 위해 진행

광주 광산구 어룡동(동장 이정은)은 2일 견고 싶은 마을조성을 위해 진행해 온 환경정화활동 '어룡 초록 발걸음'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어룡 초록 발걸음'은 좁길(좁기+조깅)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을 홍보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관내 공원 및 학교 통학로, 운수, 선암, 신

역마을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온 어룡동 통장단과 지역주민은 이날 활동을 마지막으로 '어룡 초록 발걸음'을 마무리했다.

이정은 어룡동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 곳곳이 더 깨끗하고 쾌적해졌다"며 "기후행동 실천이 일상화되는 마을, 견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삼도 우아한 장터' 성료...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 특출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서 지난 29일 삼도청년회(회장 유보선) 주최로 '삼도 우아한 장터'가 열렸다.

하나로마트 삼도농협본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장터에서는 삼도지역 대표 농산물 판매와 어

린이 행복 플라마켓, 업사이클링(재활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테마가 있는 버스킹 문화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삼도청년회가 삼도쌀로 직접 만든 막걸리 시음회와 주민이 짚은 '1등 막걸리' 시상식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2018년 '삼도야시장'에서 시작한 삼도 우아한 장터는 지역 먹거리 홍보와 주민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아동 안전실태 점검

### 광산구, 30일까지 328곳 대상

광주 광산구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광산구 어린이집 등 총 328곳이다. 광산구는 CCTV 설치 기준 준수, 정상작동 및 영상정보 대장관리 여부 등 기본적인 관리 상황과 함께 아동학대 징후, 급식안전 등 아동안전과 관련

한 부분까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자체·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실태를 더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의 CCTV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치해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